

전북대, 유학생 5000명 유치 '탄력'

양오봉 총장, 美 페어레이디킨슨대학교와 협약...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열릴 듯

캘리포니아 주립대 도밍게르힐즈 방문... E-스포츠 관련 컨퍼런스 추진 방안 논의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선언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미국 주요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지난 13일부터 미국의 주요대학을 찾아 긴밀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번 방문에서 양 총장은 페어레이디킨슨대학(FDU)을 찾아 이 대학 미셸 아발트로니(Michael Avaltroni) 총장을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뉴저지에 2개,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런던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학은 세계대학총장회의(IAUP)의 7개 창립 멤버 대학 중 하나로, 특히 뉴욕과 가까운 국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세계대학총장회의에 전북대가 참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추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MOU를 추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UN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전북대 생뿐 아니라 지역의 고교생들에게도 해외연수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양 총장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에 속한 23개 캠퍼스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르힐즈를 방문해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4월 토머스 A 퍼햄(Thomas A. Parham) 총장이 전북대를 방문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석사 과정의 복수학위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복수학위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답방에서 양 총장은 퍼햄 총장을 만나 E-스포츠 분야에서 e-드론 축구 개발 연구를 공동 추진하고 2025년 전주에서 개최되는 드론축구 월드컵

에 양 대학이 개발한 e-드론축구 베타 버전을 소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공동의 관심사인 E-스포츠 관련 컨퍼런스와 게임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E-스포츠 공동 컨퍼런스를 7월에, 게임대회는 오는 9~10월경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오는 10월 토머스 A 퍼햄(Thomas A. Parham) 총장이 전북대를 재방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학문의 요람인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이하 UC 어바인)도 방문해 할 스탠(Hal Stem) 부총장과 리양 리 우(Liang Li Wu) 국제 학생 교류 담당자, 신혜원(Hye-Wan Shin) 한국 교류 디렉터 등을 만나 학생 파견과 공동연구 등을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미국의 주요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협력의 성과를 내 매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밍게르힐즈를 방문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사진 오른쪽)이 토머스 A 퍼햄 총장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쁘다"며 "학생교류나 공동연구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유학생 5천명 유치의 기반을 닦고,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기회의 마당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감정평가 연계전공 개설 기념'

전북대, 내일 감정평가사 네트워킹 세미나·특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감정평가 연계전공 개설 기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 연계전공은 지난해 11월 1조원 시장 규모의 감정평가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뜻을 같이 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개설됐다. 공공인재개발부 주관으로 농경경제학과와 도시공학과, 통계학과, 환경공학과, 회계학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전공 개설을 기념하고 감정평가사들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22일 오후 2시 30분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감정평가사 네트워킹 세미나와 특강이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재임 당시 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공 개설을 주도한 허강무 교수(전공 대표교원)의 전공 소개와 함께 전북대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시험수기 등을 내용으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연계전공 개설에 큰 힘을 보탠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이날 전북대에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 및 특강은 관련 분야 전공학생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관심 있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학사구조 개편

10개 단과대학·4개 학부·41개 학과에서

8개 단과대학·4개 학부·43개 학과로 재편

학사·석사 3개 학과 신설... 수소에너지 특성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5학년도 학사구조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10개 단과대학·4개 학부·41개 학과를 8개 단과대학·4개 학부·43개 학과로 재편했다.

특히 미래융합대학에 수소모빌리티학과(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수소테크 융합대학에 수소에너지공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수소모빌리티공학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와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 전략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원체계 고도화와 학사구조 유연화 등을 위해 자율전공대학을 신설했다.

앞서 우석대는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 공청회와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박노준 총장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인재를 유연하게 배출하기 위해 학사구조를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미래 전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에 기반한 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세계시민역량 키운다

24일까지 싱가포르서 상반기 해외문화 체험학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일 싱가포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30명이 참여하는 상반기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국외 활동 참여가 제한적이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맞춤형 해외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평소 접해보지 못한 색다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배우는 진취적 삶의 자세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특수교육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며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을 경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 체험학습은 다양한 형태의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며

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특수교육대상학교 및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학교도서관 연계 '책방순례' 10월까지

전주교육지원청, 유형별로 추진... 실물수서 등 6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도서관 연계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책방순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책방순례'는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하는 협력망을 구축해 책 읽는 독서 문화 조성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립도서관의 추천을 받은 지역서점과 참여 학교도서관을 매칭해 다양한 유형의 '책방순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크게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책을 찾아가는 책방순례형과 서점이 찾아오는 학교도서관 활용형으로 나눠 △실물수서(현장수서) △서점지

기(대표) 또는 작가 특강 △전시와 독서연계체험 등 6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는 "'책방순례'에서 책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 동네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연대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기 교육장은 "지역사회로 나간 학교도서관은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며 "추후에도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치즈과학고, '협약형 특성화고' 되다

교육부, 전국서 10개교 선정... 치즈·미생물 분야 지역인재 양성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거듭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한국치즈과학고 치즈 분야와 미생물·바이오 분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다.

앞서 전북에서는 한국치즈과학고가 임실군-치즈산업체 컨소시엄을, 전북하이텍고가 스마트팩토리분야로 임실군-임주산단 컨소시엄을 각각 꾸려 발표평가를 진행, 한국치즈과학고 등 10개교가 선정됐다.

한국치즈과학고는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임실과 함께 움트는 치즈명장, 세계로 꽃피울 지역인재'를 비전으로 △치즈개발·제조 캡스톤 디자인 △마을과 함께하는 리빙랩모델 △교육·취업·후학습·정주를 위한 산학공동교육 △학교+기업 유제품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을 주요 교육플랜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R&D 지원인재, 상하능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학교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한국치즈과학고 관계자들.

원·친한F&B 등 연계 핵심기능인재, 스타트업 인재, 협약대학 진학(계약학과) 등 다양한 진로 및 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치즈산업 및 축제 연계, 국외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정주 및 취업 지원, RIS 및 직업교육혁신지구를 연계한 지역인재가 정주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북글로벌특성화고 등을 추진,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교육감 1호 결재로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계획(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선도모델을 만들겠다"면서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직업교육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광주교대와 IR 시스템 구축 '맞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7일 광주교육대학교와 IR 시스템 공동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IR 시스템 공동 구축 △IR 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IR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IR 시스템 공동 구축·운영에 관한 기타 행정 사항 등이다.

두 대학은 IR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성과지표 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학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교육대학교와 체계적인 IR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고도화된 IR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학 경쟁력의 실질적인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이공계

특성화대 입시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이공계 특성화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특성화대는 국가 과학기술계의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이공계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이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대학 입학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KAIST부터 시작되는 설명회는 이날 오후 8시 50분에 마무리된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공계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에 대해 맞춤형 진학지도를 펼쳐 나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노동인권 연수 4차례 걸쳐 개최

총 8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부터 4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노동인권 연수를 실시한다.

먼저 20일과 21일, 이어 27일과 28일 각각 전주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연수에는 회차별 200명씩 총 800여명 지방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예방으로 노동인권 향상,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간단한 노동권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작년 노사연수 설문 결과 호응이 높았던 지방공무원의 권익증진과 자위향상, 노동인권 강화와 실제 학교 현장 사례 등을 반영해 연수를 구성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지방공무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연수 및 청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3일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

김유미 작가 초청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에 김유미 작가를 초청해 '공감하는 독서, 치유하는 글쓰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유미 작가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각종 매체의 고정 필자로 활약 중인 SNS 파워북 인플루언서다.

작가가 최근 펴낸 '감으로 읽고 각오로 쓴다', '미오기쁨'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라 있기도 하다. 이번 초청 강연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김유미 작가는 깊이 있는 독서로 한국 서평의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번 강연이 독서교육과 글쓰기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